

蛇足

金貞欽〈理博·高麗大學教授〉

蛇足이란 말이 있다. 뱀의 발과 같이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뜻하는 말이다. 漢나라 時代에 만든 戰國策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故事에 由來한다.

즉 어느 집 主人이 머슴들을 모아놓고 단 한사발의 술을 부어주고는 여럿이서 나누어 마시라 하였다. 그래서 머슴들은 모여 앉아 「이 술은 여럿이서 한입씩 마셔 보았댜자 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들 땅에 뱀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가장 빨리 그린 사람이 이 술을 마시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다들 一齊히 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뿔다」하고 술잔에 손을 댔다. 그리고 남들은 쳐다 보았던바 다들 아직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의기 양양한 이 친구 그만 오기가 생겨 「난 발까지도 그릴 수 있다네」 하면서 뱀 그림에 발까지 追加로 그려 넣었다. 그러자 두번째로 빨리 그린 머슴이 튀어나와 술잔을 뺏어 쥐고는 「야 이 친구야! 뱀에 어찌 발이 붙어 있다. 그런데 자네 방금 뱀 그림에 발을 그려 놓았거든. 그러니 이 술잔은 내것일세」하고 마셔버렸다. 즉 蛇足이란 쓸데도 없는 군더더기를 붙인 까닭에 오히려 本錢마저도 잃어버리는 등의 어리석음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蛇足이 많이 있다. 例컨데 어느 집이나 어느 會社 또는 會社에 갔을 때 물어보지도 않은채 가져다주는 커피가 그 것이다. 그 親切과 好意에 감사는 하지만 韓國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淸教徒나 모르몬教徒와 같이 敎理上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커피는 즐겨마시나 胃酸過多나 胃潰瘍등으로 醫師로부터 커피마시기를 금지 당한 사람도 있다.

그 커피란 것의 內容이 또 문제이다. 마실 사람의 意思와는 全然 無關하게 「프림」인가 하는 植物性人造牛乳粉末을 듬뿍 치고 설탕을 세수 같이나 네수갈씩 쳐주니 고맙기는 하나 도대체 내 취미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 따라 블랙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설탕을 전혀 안치는 사람, 한 스푼만 치는 사람, 두 스푼만 치는 사람등등도 있을터인데 말이다.

飲食提供時의 이와 비슷한 사소한 蛇足이야기 (牛乳에다 설탕을 쳐오기도 하고 牛乳를 펄펄 끓여오기도 하는 따위)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이 비슷한 년센스랄까 어리석은 風習이나 光景이 많다.

한예로 거리의 우체통을 들자. 위쪽에 비를 막는 덮개가 있는데도 우편물을 넣는 구멍에는 반드시 두경(垂直으로 매달려 있으며,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우편물을 넣을 때 방해가 된다.

또 두루말이 化粧紙에는 왜 그렇게도 시작점에 풀을 붙여놓았는지 그놈의 풀을 떼느라 10여장의 휴지를 망가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것을 떼느라 신경질이 난다.

萬進法인 우리나라에서 3칸마다 굵은 줄로 千進法用的 칸을 친 理金出納簿도 그렇고, 듣고 싶지도 않은 카세트 音樂이나 라디오를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크게 틀어놓는 市内버스나 高速버스의 音樂도 그렇다. 손님에 對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은 苦痛의 強要이다. 親切도 度가 넘으면 싫어지는 법인데, 善意로 한다는 親切이 不快感의 原因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蛇足은 우리 周圍에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좀더 合理的인 생각으로 이런 蛇足을 하루 빨리 없앴으면 한다.